

가을은 상쾌함을 연상하게 한다.

가을로 향하는 9월에는 아주 추울 때가 있다.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대서양의 차가운 고기압이 우리 나라에 불어 올 때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논밭의 수확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품질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건조한 바람이다. 이러한 천연환경에 재빨리 겨울용을 찾아 입게 된다. 매장에서는 겨울용의 판매가 신장한다. 9월부터 가을이라고 하여도 중순까지는 아직도 더위가 계속된다. 하순에 이르러 가을비와 함께 태풍이 하나 둘 지나가면 거리에 난무하던 반소매라든가 흰옷들도 하나 둘 사라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초가을의 피부에 상쾌함을 가져다 주는 서늘한 바람과 서늘한 기온은 여름철과는 달리 맑고 밝고 조용함을 느끼게 한다. 가을이 하룻밤 만에 오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점점 깊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거의 한달 사이로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입추로서 아직은 여름이 남아 있어 가을비가 오기 전까지는 30℃를 오르내리는 더위를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30℃ 사이의 온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서 24℃까지 온도가 내려가는 파란 하늘이 만리까지 보이는 때라고 한다. 세 번째는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며, 상쾌한 가을로서 운동회를 한다든가, 야유회를 갖는 행락철로서 기온은 24℃에서 20℃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가을이 깊어 가는 만추로부터 초겨울까지로 기온은 17℃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파리나 런던의 여름의 마지막은 9월이다. 가을은 10월뿐으로 11월부터는 기나긴 겨울에 들어간다. 9월에 들어서도 아직 덥고 더위가 남아 있으나 가을 옷으로 바뀌어 입고 기분 전환을 한다. 검정색이나 갈색 상의를 입기도 하고 셔츠나 블라우스 소매는 길어지며 흰색 핸드백, 구두, 벨트 등의 모습도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9월은 미각의 계절이며, 행락철이기도 하고, 곡

식의 수확에 감사하는 달이기도 한다. 결혼식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일도 자주 생기는 계절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 시즌은 보통 봄, 가을에 행해지는데,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여름인 6월에 행해진다고 한다. 유럽의 6월은 우리 나라의 봄, 가을의 화창한 기후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준 브라이드 (June bride) 문화권인 유럽과 봄, 가을에 행하는 결혼 문화권인 우리 나라와는 의외로 차이점이 있다. 폴벌레 소리를 들어가며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겨울을 맞이한다. 이러한 가을의 다채로움과 기간이 의생활을 다종다양하게 한다. 반소매로부터 소위 철부소매, 긴소매로 바뀌어 간다. 카디건, 스웨터를 입고 조끼를 입는다. 복종이라든가 디자인이 바뀔과 더불어 겹쳐 입기가 행해진다. 색상도 검정, 와인레드, 카멜, 빨강 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가을 패션을 파는 사람은 기민성을 필요로 한다.

의생활은 이러한 리드미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변한다. 그 기간은 약 3개월로 길다. 옷의 종류가 바뀌고 디자인의 디테일이 바뀌고 옷감이 바뀌고 착용 방법이 바뀌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 모두이지만 특히 비즈니스계의 사람들이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양모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양모 옷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모우 또는 모방이 있는 것, 축융되어 바탕이 치밀한 것, 벌키성이 있어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 것, 요철이 있는 것 등으로 옷감 속에 공기 층을 만들어 움직이지 않는 공기를 넣고 움직이지 않는 공기 층을 만들어 체온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고 추위가 우리 몸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옷감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공기는 열을 전달하지 않고 가볍다. 속된 이야기로 공기는 돈이 들지 않는 보온소재이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기를 입는다고도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의 하나이다. 이러한 공기를 섬유와 섬유, 실과 실, 옷감과 옷감 사이(겹쳐 입는 옷과 옷 사이) 사이에 공기를 함유시켜 신체의 주위에 머무르게 하여 우리들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상쾌함은 가을을 연상하게 한다. 그런데 가을이 찾아오는 9월에 들어서면 서부터 유독 잦은 가을비나 태풍 등으로 자주 내리는 가을비에 젖어 더럽혀진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불쾌하게 된다.

의복을 만드는 섬유의 종류는 많으며, 그 중에서도 천연섬유라든가 셀룰로스섬유(레이온, 큐프라, 폴리노직, 정제셀룰로스 등)는 일반적인 생활 환경 하에서도 습기를 흡수하고 있다. 섬유의 흡습량은 공기 중의 습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온도 20℃, 습도 65%로 한 상태에서 메리노 울의 흡습량은 16%의 수분을 입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섬유의 흡습량과 비교하여 보면 울이 가장 많은 편이다. 폴리에스터는 0.4~0.5%, 아크릴 1.2~2%, 나일론이 4%, 면이 7%, 마 7~10%, 레이온 12~14%라고 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모든 비를 맞아도 쉽게 젖지는 않는다. 물을 튕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면 재킷이라든가 진,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사람은 비를 맞으면 흠뻑 젖어버리지만, 모직물을 입은 사람은 젖은 모습이 심하지 않다.